학교와 가정 잇는 알짜 징검다리
군산 대야풀뿌리마을학교

생각해보면 어떤 학교든 우리 '동네'에 있다. 누구나 '동네'에서 나고 자라며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과 함께 호흡하며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은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주체다. 군산의 대야풀뿌리마을학교가 바로 그런 존재다. 훌륭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와 가정 사이를 알차게 이어주고 있다.

제대로 놀고 학습하는 마을 배움터

학교가 끝나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시골의 우리 학생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마을 사람들과 또 다른 학교가 있다. 대야풀뿌리마을학교는 학교와 가정 사이에서 알토란처럼 징검다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맞벌이 부모님이 데리러 오기 전, 또 어떤 친구들은 학원 버스가 오기 전, 또 다른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차량이 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마을 강사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보낸다.

시골의 학교는 아무래도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농번기 돌봄 공백은 도시의 아이들이 겪지 못하는 어려움이다. 그러다 보니 하교 후 딱히 갈만한 곳이 없어 학교 인근을 배회하거나 방황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마을학교가 바로 이러한 공백을 훌륭하게 메워주며 학생들이 제대로 놀고, 먹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안전한 장이 된 것이다.

방과후마을학교는 내가 사는 고장의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며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내 영리·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 중 방과 후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고 있다. 대야풀뿌리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대야문화예술협동조합이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야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참여한 학생들만 총 2,072명, 181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함께했던 마을강사는 35명에 이른다.

90세 넘은 참전용사도 마을강사

3년째다 보니 뭉클하고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다. 지난해가 대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이었는데 학교와 협업으로 '이야기를 듣다, 세대를 잇다, 마을을 품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교의 깊은 역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각 계각층의 선배 동문이 지금의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은 추억에 젖어, 재학생들은 선배들에게 듣는 옛날이야기와 경험에 신이 났다. 이 중에는 90세가 넘은 마을강사도 있었는데 무려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다. 무공훈장을 달고 학교에 와서 눈물을 훔치던 모습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감동하는 모습이었다.

올해는 '우리가 그린(Green) 대야 축제 한마당'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테마주간 동안 운영했던 생태환경 독서프로그램이다. 성과는 대단했다. 학생들은 환경도서가 전시된 도서관에 방문해 북캠핑 활동과 교과서를 활용한 창의예술 책놀이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과 생태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영어와 배드민턴, 공예, 스포츠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커리큘럼 대부분은 학생들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만든다. 아이들이 실제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니 참여율이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강사들의 반응도 남다르다. 이들은 마을학교 강사가 되기 위해 각종 박람회를 찾아다니며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광장히 열정적이다. 그래서인지 강사들이 그날그날의 기록을 매일 SNS에 올리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학부모 등 초대된 이들의 응원이 끊이지 않는다.

학생들도 주민들도 만족도 최고

전라북도에는 현재 다양한 방과후마을학교가 운영 중이다. 올해에만 51개가 새로 지정되었으며 특수 돌봄형, 학교-마을연계형, 학교군-지역연계형, 지역 거점형 등 총 184개의 학교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많이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학교와 학부모,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의 특색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마을강사들의 맞춤형 방과후수업 만족도는 90%가 넘는다. 현재 5,418명의 학생과 마을학교 강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어느덧 지역사회의 주요한 교육주체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마을학교가 마을공동체와 학교 사이 소통과 협력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야문화예술협동조합 김은자 이사장은 "우리는 모두 뼛속까지 대야인입니다. 대야초가 모교이면서 남편과 자녀를 포함해 4대가 모두 동문입니다. 당연히 이 학교와 학생들, 선생님과 학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결국 우리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왔기에 모두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도 대야풀뿌리마을학교의 일원들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건강한 배움터, 알찬 체험터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며 행복한 마을학교를 만들어갈 것이다.